속초 인제 고성 양양

## 동정

◇**홍우길 속초시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1시 30분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월남참전 43주년 및 제6회 국군파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김진기 속초시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의회 위원회의실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주관한다.

◇**김상만 인제군의원**은 18일 오전 11시 서화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서화면 기관사회단체장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김두원 양양부군수**는 18일 오전 11시20분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2014동계올림픽유치 범도민 후원회 총회에 참석한다.

◇**최돈일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18일 오후 6시30분 속초시내 음식점에서 교도소 및 교정시설 유치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 속초해수욕장 상인 '울상'

## 태풍 영향 피서객 기대 이하… 특수 실종 우려

속초해수욕장이 개장이후 잇따른 비로 조기 개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목을 노리던 해수욕장 주변 횟집 등 상인들은 손님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고있다.

특히 파도가 1~2m로 높은데다 설상가상으로 높은 파도로 인해 바닷속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수심이 깊어져 입수가 전면 금지돼 튜브, 파라솔 등 대여업자들은 한숨만 쉬고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에는 지난 16일까지 열흘동안 총 7만1899명의 관광객이 입장, 지난해 같은기간 해수욕장 입장객보다 219% 증가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10만명선에는 못미쳤다.

이는 해수욕장 개장이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영동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이다.

속초기상대에 따르면 속초해수욕장이 개장한 후 열흘 사이 맑은 날씨는 개장 첫 주말 등 3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맑은 날에도 장마 여파 등으로 파도가 2m 가량으로 높아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닷물에 몸을 담그지 못한채 백사장만 거닐다 서둘러 떠나는 바람에 주변 상가들은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초대형 태풍이던 '마니'가 별 탈 없이 물러가 지난해 피서철 초기 수해로 인해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상황이다.

이번주에도 19일~21일까지 비소식이 예보돼 주말 피서객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속초해수욕장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해수욕장 개장초기 궂은 날씨로 재미를 못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하늘만 원망하고 있다"며 "장마가 끝나는 이달 말이나 돼야 상인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속초/김창삼

**낙산해수욕장 피서 인파** 장마전선이 잠시 주춤하고 제헌절을 맞은 17일 양양 낙산해수욕장에 수많은 피서객이 몰려 모처럼 즐기는 물놀이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 양양/구정민

## 양양예총 20일 창립

## 초대회장 최종덕씨

양양군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양양예총'이 20일 정식 창립된다.

양양문화원과 양양예총 창립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발기인 회의를 갖고, 지부설립과 운영규정 등 정관을 확정한데 이어 최근 초대 회장에 최종덕(64·사진)씨를 선출했다.

양양예총은 산하 지부로 문인협회와 음악협회, 국악협회, 연예협회 등 4개 협회를 두고 있다. 양양지역은 그동안 가맹단체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립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양양/구정민 koo@kado.net

양양초교 고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부가 창작 뮤지컬을 제작, 화제가 되고 있다.

## "춤, 노래 우리가 좀 돼죠"

### 양양초교 연극부 창작뮤지컬 공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도 하기 어렵다는 창작 뮤지컬에 도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양초교 고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부는 오는 24일(오전 10시, 오후 6시30분)과 25일(오후 6시30분) 두차례 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추억을 아삭아삭'이라는 창작 뮤지컬을 공연한다.

창작 뮤지컬인 '추억을 아삭아삭'은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겪는 고민과 추억을 옴니버스 형태로 담아낸 작품으로 첫사랑, 왕따, 시험 등을 주제로 8가지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지난해 처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뮤지컬 명작을 멋지게 소화해 내기도 한 양양초교 연극부는 최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공모를 한 뒤 모아진 이야기로 창작 뮤지컬에 도전하게 됐다.

창작 뮤지컬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자유롭게 놀 시간임에도 불구, 지난 2월부터 매일 2시간씩의 맹연습을 강행한 결과 드디어 무대에 선보이게 됐다. 특히 학생 스스로 대본을 짜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어 기존 노래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등 뮤지컬의 모든 과정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소화해 내고 있다.

물론 보통 뮤지컬처럼 많은 돈과 스텝들이 투입되지 않은 탓에 어려움이 컸지만,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추억거리와 미래상을 그리며 웃음을 잃지 않고 무대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는 전영은(6년)양은 "무대에서 우리의 모든 끼를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양양/구정민 koo@kado.net

## 양양 체육시설 건립 '물거품'

### 잔디구장·육상트랙 조성 체육진흥기금 지원 탈락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양양지역에 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을 조성하려던 사업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양양군은 지난해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동대 양양캠퍼스 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을 위한 사업비 12억원을 요청했으나 최근 우선순위에서 밀려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관동대와 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설치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군은 건의문에서 "양양은 수년전부터 체육시설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2년부터 계속된 재해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군민들은 열등감마저 안고 있다"고 어려운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또 우수한 숙박여건과 따뜻한 해양성 기후 등으로 인해 전지훈련을 희망하는 대학팀 등이 많지만,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해 결국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잔디구장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초·중·고교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다, 올해 전국 103개 자치단체 중 10개만 선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고 양양군의 탈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양양군은 내년에도 기금신청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기금 배정 기준을 놓고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올해 초 만해도 기금 확보에 순항이 예상됐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탈락했다"며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에는 반드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구정민 koo@kado.net

## "서열보다 능력 우선"

### "일부 읍·면장 특정고 배려" 뒷말 무성

### 인제군 인사평

인제군이 조직개편에 따른 6급이하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인사는 올해 수해복구 조기완공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난관리과 신설 등 조직개편과 맞물리면서 대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직개편을 제외하면 지난해 인사를 보완하는 수준이였다는 평가이다. 인제군은 이번 인사에서 실과소장들의 책임권한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실과소장들에게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와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 인사권한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5급인사후 3, 4일이 지나 6급이하 인사를 단행했다.

또 박유희 서화면 총무담당을 북면장으로 임용한 것은 능력을 배려한 발탁인사라며 서열보다 능력을 우선함으로서 민선4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인사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출신이 지난해 북면장에 이어 이번 인사에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것을 비롯, 일부 읍·면장 전보는 정치색이 배제되지 않았고 특정고 출신을 배려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담당자들은 정치색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때 과도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인과응보라는 해석도 있어 향후 인제군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벌써부터 오는 연말 배영구 부군수 퇴임후 부군수를 도에서 받는 것과 자체 승진 문제가 민선4기 인제군정의 최대 진로를 결정하는 핵심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어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제/권재혁 kwonjh@kado.net

## 산업기능요원 모집

### 속초해양수산사무소

속초해양수산사무소(소장 어명수)는 2008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를 모집한다.

속초시 거주자는 20일, 양양군은 23일, 고성군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됐거나 다음연도 선정예정으로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징병검사를 받은 자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다.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휴학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속초/김창삼

## 해수욕장 행락질서 특별단속

### 고성군, 26곳서 내달 19일까지

고성군은 군내 26개 해수욕장이 지난 13일 일제히 개장함에 따라 오는 8월19일 폐장일까지를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을 벌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행락분위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5개실·과 18명의 담당으로 편성된 '행락질서확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총괄추진반을 포함한 질서계도반, 교통대책반, 물가단속반, 시설관리·안전대책반 등 총 5개 부분에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군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불량식품판매 등 불법영업행위 △음주소란, 도박 등 질서문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사전경고제(Yellow Card)를 실시해 2번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고성/최 훈


2007 여름방학
제15회 강원도민일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캠프
"과학, 역사교사가 동행하는 외국문화체험에 초대합니다"

● 참가대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교사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www.world-tour.co.kr)
● 신청안내 – 강원도민일보 기획국 ☎260-9300
세계여행사 ☎253-0001

1. 과학교사·역사교사 동행 현장 설명
강원도민일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여행은 과학교사, 역사교사가 동반합니다. 과학과 역사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외국 유적지 현장에서, 오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자세한 안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문 강의가 없다면 학생들이 얻는 지식과 안목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 A코스 B코스 : 과학교사 동행 –중국 B(고구려)코스 : 역사교사 동행

2. 생생한 나의 체험담 실은 해외문화체험수기집 제공
외국 여행에서의 마지막 날 밤, 학생들이 해외 곳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생생한 느낌을 일기나 수기 등 글로 남겨 예쁘게 책으로 꾸밉니다. 모처럼의 해외여행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학습 효과를 높이고,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체험수기집을 발간하여 참가한 학생에게 드립니다. 여름 방학 계획에 맞춰 책을 발간하여 과제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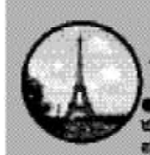
일본 자연과학 캠프
● 일본 A코스 : 오사카/교토/고베 4일 ★유니버셜스튜디오★
● 탐방기간 : ▶ 1차 – 7월 27~30일 ▶ 2차 – 8월 3~6일
● 참가경비 : 만12세미만 학생 95만원 / 만12세이상 학생,학부모,교사 105만원
● 일본 B코스 : 동경/오다이바/닛코/후쿠시마 5일 ★디즈니랜드★
● 탐방기간 : ▶ 1차 – 7월 26~30일 ▶ 2차 – 8월 9~13일
● 참가경비 : 만12세미만 학생 109만원 / 만12세이상 학생,학부모,교사 : 125만원



중국 문화체험 캠프
● 중국 A코스 : 북경/만리장성/용경협 4일
● 탐방기간 : ▶ 1차 – 7월 29일~8월 1일 ▶ 2차 – 8월 9~12일
● 참가경비 : 75만원
● 중국 B코스 : 장춘/고구려/백두산서파 5일
● 탐방기간 : ▶ 1차 – 7월 30일~8월 3일 ▶ 2차 – 8월 3~7일
● 참가경비 : 84만원

싱가포르 문화체험 캠프
● 탐방기간 8월 9 ~ 13일(4박5일)
● 탐방코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희교사원, 전통마을, 주롱새공원, 브하닉가든(난공원), 나고야시내, 힐주민박습, 중국사원, 머라이언파크, 센토사섬음악분수쇼, 수족관
★ MRT전철, 2층버스타기체험 ★★ 오차드 거리에서 영어다선체험 ★
★ 음식문화체험(LAU PA SAT MARKET) ★
● 참가경비:만12세미만 학생 95만원 / 만12세이상 학생,학부모,교사 115만원

호주 문화체험 캠프
● 탐방기간 8월 9 ~ 14일(5박6일)
● 탐방코스:시드니/블루마운틴/포트스테판★ 호주전통농장체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에코포인트, 세계유산, 호주야생동물원(WILD PARK),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 골드코우드 호주전통농장, 뉴사우스웨일즈주립대학, 포트스테판, 스톡턴비치, 넬슨베이, 블랙브루즈함습,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맥콰리제어포인트, 시드니하버유람선탑승
● 참가경비:만12세미만 학생 135만원 / 만12세이상 학생,학부모,교사 155만원



유럽 4개국 문화체험 캠프
● 탐방기간 1차 7월 30일 ~ 8월 7일(8박9일) 2차 8월 6 ~ 14일(8박9일)
● 탐방코스: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 4개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사원, 빅벤, 버킹검궁전, 대영박물관, 타워브릿지,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에펠탑, 상제리제거리, 몽블랑유람선 탑승, 몽블랑등정, 스칼라극장, 두오모성당, 성모마리아 대성당, 시뇨리아광장, 미켈란젤로 언덕, 바티칸시국 및 바티칸 박물관, 시스타나 예배당, 성베드로성당,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트레비분수, 대전차경기장, 진실의 입 나폴레, 폼페이, 소렌토
● 참가경비:만12세미만 학생 255만원 / 만12세이상 학생,학부모,교사 285만원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